(주) 이폴리머

대표이사 : 홍태희 사장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110-15 우 : 445-931
(연구소 및 공장)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3가 101-1 창업3-108
전 화 : 031) 352-0800

1. 제 2 창업 정신으로 재도약하는 (주)이폴리머

경쟁이 치열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업계는 항상 외국 기업들의 독무대였다. 외국 기업들은 그들의 우수한 마케팅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시장에서 우위에 있었다. IT 분야 신기술의 발전과 전자기기의 초소형화는 한 단계 성능 높은 재료의 물성을 요구했으며, 이에 누가 빨리 대응하느냐가 시장점유에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물론 고기능 고성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 국산화는 아직 갈 길이 멀다.

2000년 4월 홍태희 사장은 기능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국산화를 위해 그와 뜻을 같이 한 몇몇과 (주)이폴리머(e-polymers Co., LTD.)를 창업하였다. 주 생산 품목은 TEKAMID® 폴리아마이드(나이론) 수지의 사업화 이래, TEKASTER® 폴리에스터 수지, TEKANATE® 폴리카보네이트 수지, TEKALOY® 고분자 Alloy, TEKAPPO® 변성 PPO/PPE와 TEKAFIN® 폴리프로필렌 복합수지를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는 맞춤 제품으로 상업화하여

다양한 열가소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를 공급하는 능력을 갖추었다. 또한 BAYER, BASF, Dow-Corning, Ticona 등 외국회사와 Partner 관계를 맺어 협력을 하고 있다. 2005년 부터는 제품의 다각화를 위하여 SEPAZ® 란 상품명으로 long glass fiber thermoplastics을 제조하여 판매중에 있으며, 올해안에 5종류 이상의 고기능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를 개발하여 출시할 예정이다. 2001년 10월에는 우량기술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03년에는 3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여 수출기업으로서의 면모도 확고히 하게 되었다. 회사 창립이래 지난 5년간 매년 130% 이상의 매출성장을 이루어 2004년에는 매출액 170억원을 달성하였으며, 올해는 250억원을 목표로 (주)이폴리머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 고객의 격려에 힘입어 해마다 기록적인 발전을 거듭한 (주)이폴리머는 이제 세계적인 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 생산의 중견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이제 (주)이폴리머에게 남겨진 과제는 고기능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개발로 세계시장에서의 자리를 확고히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주)이폴리머는 독립적인 콤파운더로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맞춤소재 틈새시장에 회사의 사업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세계는 이미 국내 플라스틱 업계의 기술력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세계시장으로 나가기 위해서 국제 규격의 확보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이를 위하여 (주)이폴리머는 2004년에 ISO9001, QS-9000 인증을 받았으며 UL 인증을 통해 고객의 요구에 만족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업으로 커 나가기에 손색이 없다는 것이 각계각층의 의견이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업계에서 (주)이폴리머의 자리에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주)이폴리머는 더욱 다각화되는 생산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약 60억원을 투자하여 만톤/년 규모로 경기도 화성에 3500여평에 이르는 컴파운드 공장 및 연구소를 2005년 7월말 완공 예정에 있다. 전 임직원은 제2 창업정신을 바탕으로 신설공장의 설비와 기기에 이르기까지 모두 새롭게 탈바꿈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속한 제품공급 및 고부가가치 신제품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2. 차별화만이 살길이다.

한국사회는 말한다. 대기업이 아니면 살아 남기 힘들다고..

하지만 (주)이폴리머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대기업만이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은 이미 버린 지 오래다. 시장의 요구는 다품종 소량생산의 생산체계가 더욱 가속화되는 추세로 발전하고 있다.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누가 먼저 개발해 내느냐는 시장에서의 기업위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이다.

이에 (주)이폴리머는 고객에게 우수한 기능의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힘써왔다. 신제품 개발을 통한 기업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하여 연구개발 부문에 더욱 힘을 싣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기업은 소량 주문 및 특수 주문 제품 생산에 적합하지 않다. 이젠 고객의 작은 요구 하나까지도 모두 수렴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대규모의 생산체계가 소화해내지 못하는 이러한 아기자기한 맞춤형 생산체계는 중소기업의 이점이자 최대 강점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중소기업의 특징을 최대한 살려 날씬한 경영체계와 발 빠른 기술개발로 고객에게 다가가는 (주)이폴리머가 될 것이다.

3. 고기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 개발 프로젝트

(주)이폴리머는 자동차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의 생산 및 판매에서 벗어나, 2010년에 1,000억원의 매출규모를 달성하기 위하여 고부가가치 제품군의 확대로 사업구조를 다각화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기술연구소에서는 앞으로 미래를 주도할 고분자 소재로써 초소형화 초경박화가 가능한 제품으로 고기능 고분자 알로이와 수퍼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 및 나노 콤포지트의 연구개발을 진행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얻고 있으며 현재 일부 제품은 상품화가 진행되었다. 이와 더불어 IT 분야의 Mobile 기기용 고기능성 소재 및 PLED용 소재의 개발을 위하여 국내 대학 및 정부 출연연구소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고부가가치 전자재료 개발을 통하여 이익 구조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를 개발했을 때에 이익은 범용 플라스틱의 약 10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Vision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개발 비용이 매출액의 5%가 넘었으며, 이는 Top의 의지이며 미래를 위

한 투자이자 나아가 (주)이폴리머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주요 연구기기 및 설비로는 DSC, UTM, 수분측정기, Viscometer 등 20여종이 있고, 개발장비로는 Pilot extruder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QC/QA 체계의 확립 및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년에는 국책사업 중 산업자원부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에서의 지원을 통해 다양한 고기능성 수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분야에서 신제품 개발로 특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전문 연구개발 및 생산기업으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4. Global 기업으로 가는 길

세계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제 제조, 금융, 패션 할 것 없이 모두가 글로벌화를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플라스틱 업계에는 더욱 일찍 이 바람이 불었다. 플라스틱은 애초에 외국에서 만들어 진 것이라 우리는 그들에게 글로벌화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주역이 되어 그들이 우리의 글로벌화 대상이 되어야 한다.

(주)이폴리머에게도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과제이면서 꼭 해야 할 당위성을 가진다. 이미 미국에 현지지사를 비롯 중국과 대만 등지에는 대리점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다. 앞으로 그 수를 점점 넓혀 나가서 유럽과 일본에도 대리점을 열 예정으로 (주)이폴리머의 글로벌화는 이미 몇 단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국제 사회에서 살아남는 길은 고객의 까다로운 요구에 부응하는 품질의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 및 신제품 개발로 남들보다 나은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한다. 신제품이 가격경쟁력을 가지며, 성능이 우수하면서도 그 분포가 안정을 이룰 때에 (주)이폴리머의 글로벌화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성능과 QC/QM 면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니 만큼 (주)이폴리머의 글로벌화는 더욱 앞당겨 이루어질 것이다.

5. 고객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고객의 가치를 존중하는 기술 서비스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제품 기술과 성형가공 지원뿐 아니라 컴퓨터를 활용한 성형해석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부품 설계 엔지니어링 지원 등 솔류션 마케팅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CAE(Computer Aided Engineering) 해석을 통해 고객 제품성형에 도움을 줌과 동시에 2004년에 ISO9001, QS-9000 인증을 받았으며 UL 인증을 통해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하였다.

(주)이폴리머는 고객의 성공을 통하여서만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믿음은 휴머니티와 도덕성을 기반으로 하여 '서로 도와 함께 사는' 경영 이념에서 시작하고 있다. 한편, 전임직원은 (주)이폴리머의 정신인 "Energetic Professional Cooperation"과 행동 수칙인 "Speed, Simplicity, Self-confidence"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여 차별화된 양질의 제품 및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위한 정도경영 실천으로 (주)이폴리머의 성공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